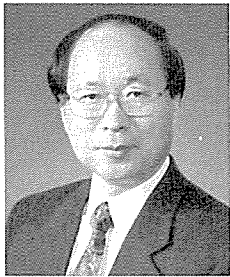


베일벗는 「담배」의 정체

- 중국 北京서 세계금연대회 -

“담배는 기호품이 아닌 마약이다” 지난 8월24일부터 5일간 중국 북경에서 세계 103개국 대표 천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금연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밝혀진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10억인구가 5조개피의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매년 2백50만명이 흡연을 원인으로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숫자는 2050년에는 천2백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의 건강을 쪼먹는 이러한 「담배」의 정체를 알아본다.



李光榮
(과학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담배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난 오늘 담배를 구제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10차 세계금연대회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세계 백3개국으로부터 천8백여명의 의학과 보건 및 금연운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20개 주제에 걸쳐 백12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중 대부분이 담배가 가져다주는 심각한 폐해를 고발하고 있다. 또 상당수의 논문은 담배회사들의 부도덕한 판매 전술로 인해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1의 담배소비국

담배가 구강암과 폐암을 비롯해서 위·췌장 등 암의 발병률을 높이고

피부를 거칠게 해서 길늬게 한다는 등의 사실은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이를 보다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중국은 세계 제1위의 담배소비국 이면서 대 연초재배국이기도 하다. 중국은 그동안 담배에 대해 관대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런 중국이 제 10차 세계금연대회를 유치한데는 이유가 있었다.

현재 세계에서 흡연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사람은 3백만명으로 보고 있다. 이중 2백만명은 선진국 사람들이고 백만명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이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5년께 천만명선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이중 3백만 명이 선진국, 7백만명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7백만명중 5백만명이 중국 사람들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금연대회를 유치하고 개막식을 중국인민대회장에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을 비롯한 각료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갖고 금연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기도 했다. 오늘날 이 같이 세계인의 관심이 담배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담배를 처음 피운 사람들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었다. 이들은 담배를 의약과 종교의식용으로 사용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피우던 담배가 유럽에 전해진 것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서였다.

담배가 유럽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556년의 일이다. 프랑스 여왕 앙드레 테베가 브라질에서 담

담배는 더 이상 기호품이 아니다. 담배는 어느 한가지 질병보다 우리의 건강을 쪼먹고 죽음을 불러들이는 가장 큰 위험인자이다. 담배는 건강을 해치는 차원을 넘어 이제 마약으로 규정지어졌다.

미국 클린턴대통령은 1996년 8월 23일 담배를 마약으로 선언했다. 담배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미국이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한다는

배를 가지고 와 파리 근교 밭에 파종한 것이 시초이다. 테베는 말린 담배 잎을 말아 피우며 맛이 아주 좋다고 선전했다.

담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테베의 친구 니코에 의해서다. 니코는 외교관이자 탐험심이 강한 모험가이면서 돈벌이를 항상 생각하는 기업가이기도 했다. 니코는 당시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귀족들이 소일거리에 알맞은 새로운 오락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니코는 담배피우는 일을 이들 귀족에게 보급하면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데 착안했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귀족들에게 담배피우는 법을 보급했다. 니코틴은 니코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다.

니코가 보급한 담배피우는 아이디어는 프랑스에서 이웃 나라로 빠르게 전파돼 갔다. 담배는 17세기에 들어오면서 교양있는 유럽사람 사이에 지위를 얻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이들 인텔리들은 흡연이 사고력(思考力)을 높여주는 것으로 믿었다.

담배가 귀족과 인텔리를 중심으로 퍼지게 됨으로써 일반 대중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으로 비취졌다. 담배는 한 장사꾼에 의해 유럽의 할 일 없는 귀족계급의 놀이로 보급됐고 이것이 마침내 귀족의 냄새를 풍기려는 일반인들에 전해져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담배를 한 손에 쥐면 마치 노숙하고 어질게 된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인생문제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갈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흡연습관은 이렇게 해서 전 유럽으로 급격히 번져갔다.

담배가 중국과 일본에 전해진 것은 17세기 초엽이다.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서 였다.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처음 피운 사람은 장유(張維: 1589~1638)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는 처음 약초로 알려져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급된 지 20년만에 흡연인구가 천명에 한사람 꼴로 늘어났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담배가 회충을 없애고 배앓이를 막아주는 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담배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른들이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아랫사람들이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무례한 일로 금기사항이었다.

그래서 담배는 청소년들에게 어른 세계로의 도전과 호기심,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접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술+담배는 '죽음의 칵테일'

그러나 담배의 해독은 이제 분명해졌다. 일반적으로 애연가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 비해 후두암 32배, 폐암 4.4배, 인두암 3.1배, 구강암과 식도암 2.5배, 방광암 1.7배, 췌장암 1.6배, 간암과 위암이 1.5배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뇌졸중 2~3배,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 6.6배, 허혈성심장병의 경우 2배의 발병률을 보인다. 흡연을 자살행위로 보는 것은 여기에 있다. 술과 함께 담배를 피게 되면 이들 해독은 더욱 뚜렷해진다. 그래서 이를 '죽음의 칵테일'이라 부른다.

그러나 애연가들은 담배피는 일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흡연권을 주장한다. 흡연이 과연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일까.

담배연기는 크게 주류연(主流煙)과 부류연(副流煙)으로 나뉜다. 주류연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 일단 입



안으로 빨아들였다가 내뿜는 연기를, 부류연은 생연기를 말한다.

주류연은 필터와 사람의 폐 속을 거치는 동안 나쁜 화합물질을 대부분 내려놓고 나온다. 그러나 부류연은 수백종에 달하는 담배 속의 각종 유해물질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래서 부류연은 주류연에 비해 니코틴 함량이 3배, 타르 4.3배, 메탄 3.1배, 일산화탄소 5배, 탄산가스 8배, 암모니아가스는 무려 73배나 된다. 하루 한 갑을 피는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주부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폐암 3.5배, 부비강암 2.6배, 뇌암 4배의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간접흡연이 가져다 주는 피해가 널리 알려진 것은 1972년 미국 후생성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간접흡연 때문에 비흡연자들도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고 흡연자가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은 폐기능 발달이 지연되며 기관지염과 폐렴 등 호흡기병에 걸릴 위험성이 커진다고 발표한 이후부터이다. 그 후 간접흡연에 대한 연구보고가 쏟아져 나왔는데 최근 WHO가 발표한 자료는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WHO는 담배연기로 오염된 실내 공기는 강력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함량이 대기오염이 심한 공장지대의 공기보다 10배 이상 더 많을 뿐 아니라 담배연기 속에 들어있는 4천여종의 화학물질은 공기중의 다른 유해물질과 섞여 인체에 한층 더 해로움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가정이나 레

스토랑은 실내의 입자상 물질의 오염도가 대기환경기준치의 5배(1m당 7백g)에 이르며 담배연기에 포함된 아세트알데히드를 비롯한 카보닐화합물인 자극성 가스는 인체에 매우 강한 자극을 주어 불쾌감을 가져다준다. 또 이러한 물질들은 흡연 후 연기(主流煙) 보다는 생담배를 태울 때의 연기(副流煙)에서 심할 경우 5백배까지 많이 배출된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실제로 주류연보다 부류연에 노출되면 눈이 따갑고 기침이 더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간접흡연에 의한 폐암발병률이 10~30%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해서 매년 3천8백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서 호주, 캐나다 등 20여개국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며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더 독한 연기를 마시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흡연이 각종 암과 호흡기병을 비롯해서 순환기병은 물론 노화를 촉진시키고 기형아 출산율을 높이며 정력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피부를 갈라놓는 등 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다.

흡연원인 사망 연 2백50만명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10억 인구가 연간 5조개피의 담배를 피고 있으며 이중 2백50만명이 흡연이 원인이 된 질병으로 생명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는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2만3천여명이 흡연 때문에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가 금연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요즘은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는 것은 담배가 마약의 특성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면서 습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있다.

담배 속의 니코틴이 바로 습관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으로 10년 후인 2천년까지 담배 없는 사회를 목표로 벌써부터 공공장소와 2시간대의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흡연을 금하고 있다. 캐나다는 국내선은 물론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흡연석을 없앴다.

미국의 담배재벌 필립 모리스가 재빨리 사업방향을 바꿔 83년 식품회사인 제너럴 푸드를 사들인 후 88년 다시 우리에게도 낯익은 크래프트를 병합, 크래프트 제너럴 푸드식품회사를 차린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담배는 이제 종언(終焉)을 고하고 있다. 미국 담배업계는 지난 6월 20일 흡연피해에 따른 보상 소송을 제기한 37개주 사법당국과 17개 개별·집단 소송청구인들에게 피해보상 및 의료지원금으로 3천6백85억 달러(3백31조6천5백억원)를 25년에 걸쳐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필립 모리스, RJR 나비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의 자회사 브라운 & 윌리엄스 등 3대 담배회사를 대표로 한 미 담배업계는 앞으로 25년동안 매년 공중보건 및 금연운동 지원에 백억달러, 개인진료비 등을 충당키 위한 보상금으로 50억달러 등 모두 백50억달러를 지출키로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이밖에도 담뱃갑의

경고문구 강화, 유명인과 만화주인공의 광고이용 금지, 옥외 및 인터넷 광고금지, 자판기 금지 등 강력한 흡연규제 조치가 추가되었다. 또 이같은 조치의 사후검증의 일환으로 미성년자의 흡연이 지금보다 5년내 42%, 7년내 58%, 10년내 67% 감소하지 않으면 연간 2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단서조항까지 붙여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협정안의 타결로 담배를 기호품이 아니라 발암물질·독성물질·마약으로 인정하여 약품과 마찬가지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규제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담배는 앞으로 FDA의 명령에 따라 니코틴에서 타르 등 유독물질의 함량을 규제받게 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배회사가 이같이 굴욕적인 타협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담배회사들은 그동안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보고에 대해 연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펴왔다. 자체연구결과 담배는 해롭지 않다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담배회사들은 담배가 원인이 되어 폐암에 걸린 사람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막대한 재력과 많은 수의 변호사를 동원해서 재판에 늘 승소해 왔다. 그러던 담배회사들이 태도를 180도 선회해서 무조건 항복을 하고 나온 것이다.

담배회사가 이같이 태도를 바꾼 데는 이유가 있다. 1995년 미국의 학협회에 소포가 배달되었는데 여기에는 1960년대 초부터 담배회사가

자체 연구한 담배의 해독에 대한 결과에서 담배판매전략회의 등 그동안 감춰온 불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

담배회사들은 60년대 초부터 담배가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니코틴이 마약의 특성인 습관성과 독성을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담배회사들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극비에 불태웠다.

미국 담배회사들은 니코틴의 마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를 했고 암모니아성분이 니코틴의 체내흡수를 촉진한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리고 실제로 암모니아성분을 첨가제로 사용해서 니코틴중독에 빨리 빠져들게 하는 연구도 했다.

담배회사들은 청소년과 여성을 흡연자로 만들기 위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전략까지 세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담배회사들은 1994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증언한 일이 있는데 이들 문건이 위증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사주들이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담배회사의 백기투항은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연구팀은 1995년 담배 속의 발암물질이 유전자변이를 촉진시켜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4년 흡연관련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2025년이 되면 매년 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고 옥스포드대학 리처드 피도박사는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 2백50만명에서 2050년 천2백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WHO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연구'에 따르면 1988년 기준 총 2조2천억원(3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되어 있다. 이중 담배 때문에 추가 지출된 의료비 부담이 1조2천4백억원(17억달러)이나 된다.

정부는 전매사업 청산해야

선진 여러 나라가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 차원을 넘어 '비흡연자를 위한 건강법'을 마련, 공공장소, 항공기와 기차 같은 곳에서 흡연을 법으로 규제하고 담배세를 대폭 인상,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줄이는 운동을 펴고 있는 이유에 여기 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마음놓고 피울 수 있는 나라는 이제 몇몇 저개발국가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우리나라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예절바른 담배문화운동 중앙회'란 이상한 단체가 한국담배인삼공사와 미국 필립모리스, 일본의 저팬 다바코 등 담배제조회사들의 후원을 받아 흡연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 한심한 일은 재경원이 이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제조회사가 출연하도록 되어있는 건강기금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건강은 뒷전에 두고 세수 증대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전근대적 담배전매사업을 하루 속히 청산해야 한다. ⑤7